

성 유대절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o.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나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좌희선 (보노사)
 이새롬 (엘카나)
 사 목 회 장 : 손영모 (가브리엘)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청년), 7시(일반)
평일미사	월요일, 토요일	오전 6시	주 일 미사 전 30분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평 일 미사 전 15분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병자 영성체 매 달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유 아 세 례 출수 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관 련 혼 배 매 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 5시

2020년 11 ~ 12월 본당 추천 도서



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
 (글쓴이: 이영숙 수녀 / 출판사: 더비움)
 30여 년간 환자들이 하느님의 품으로 가는 길, 호스피스길의 길을 함께 걸어온 이영숙 수녀 (마델암재단 사무국장,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체험해 온 사랑 가득한 이야기 책.
정상가: 18,000원 → 할인가: 10,000원

* 추천도서는 작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 **교구장님 영명축일 '영적예물' 봉헌**
 - 11월 30일(월)은 서울 대교구 교구장이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영명축일입니다. 교구장님을 위해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미사, ▶묵주기도, ▶주교를 위한 기도, ▶화살기도, ▶희생
- ◎ **병자 영성체: 11월 12일(목), 오전 10시 미사 후**
- ◎ **위령성월 사별가족 초청미사**
 - 대상: 2018년 11월 ~2020년 10월까지 본당에 교적을 두신 사별 가족

일시	시간	진행 및 장소
11월 17일 (화)	오후 6시 20분	연 도 (2층 대성전)
	오후 7시	미 사 (2층 대성전)
	오후 8시	다 과 (1층 프란치스코 홀)

- 문의: 연령회장 (010-7186-7222)
- ◎ **주임신부님과 함께하는 남성구역 한강걷기**
 - 일시: 11월 8일(오늘) 교중미사 후, 1층프란치스코홀 출발
 - 코로나 바이러스로 침체 된 남성구역 신자들의 신앙 생활을 다지기 위해 한강 걷기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점심, 저녁 제공)
 - 문의: 권 요아킴 (010-5391-9058)
- ◎ **청담 영성학교 (11월 12일(목) 20시, 2층 대성전)**
 - 강사: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

로마노 가르디니
 로마 가톨릭교회의 사제이자 작가, 신학자로 20세기 가톨릭 지성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다. 독일의 여러 대학 교수를 역임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 후 가톨릭 청소년운동 및 전례운동을 지도했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적 실존철학의 입장에서 실존과 신앙문제에 대해 연구를 계속하여 철학·문예·문명론 분야의 저서가 많다.

- ◎ **해외선교 아카데미 7주 프로그램 (대상: 30명)**
 - 일시: ~12월 17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대상: 선교의식 강화와 단기 해외선교사 양성에 관심있는 분
 - 문의: 김 헬레나 (010-8771-0401)
- ◎ **성지순례 축복장 수여식**
 - 일시: 11월 12일(목) 오전 10시미사 후, 2층 대성전
- ◎ **제 61차 성지순례 (지하철 및 도보 순례)**
 - 일시: 11월 28일(토) 오전 8시, 성당마당 출발
 - 순례지: 인천교구(교구청성모당, 담동주교좌, 제물진두성지)
 - 준비물: 회비(1만 5천원, 중식제공) 순례책자, 스카프, 간편한 복장(바람막이)
 - 문의: 송요셉 (010-5252-1791)
- ◎ **사랑의 연탄나눔 후원금 및 봉사자 모집**
 - 일시: 12월 5일(토) 오전 7시 30분, 성당 출발
 - 오전 9시~ 12시까지 연탄나눔 봉사활동, 후원물품 전달
 - 수급 대상자: 정릉동 성당 관내에 소외된 불우이웃
 - 사랑의 연탄나눔에 함께하실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문의: 현 베로니카 (010-7169-7025)
- ◎ **감사합니다**
 - 지난 10월 28일, 교우분들께서 열심히 모아주신 동전 9,400,000원을 수녀님들께서 돌보고 계신 시설 4군데와 형편이 어려운 개인 6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 **연말정산 기부금 안내**
 - 교무금 통장에 기재 된 내역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주일헌금, 미사에물 등 제외)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12월 13일(주일)까지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통장에 명기된 분으로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오니 책정자 변경하실 분들은 미리 변경 하십시오.(12월 20일이후에는 변경 불가능합니다.)
 - 국제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십시오. (*** 1회 제출 시 5년간 유효**)
 - 자동이체, 인터넷 뱅킹, 모바일뱅킹 등으로 교무금 납부하는 분들은 꼭 **책정자의 이름과 세례명**을 기입하십시오.

◎ 11월 8일(오늘): 평신도 주일 2차헌금

성가번호 입 당: 27 예물준비: 342, 218 성 체: 165, 166 파 견: 23

화 답 송

주님 저의 하느님 제 -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 나이다 -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45)

서평_「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2)_백묵 한 통

1. 세 가지 매듭을 풀다

장애인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충실히 해오던 토마스 형제는 손을 쓸 수 없는 정도로 간암 판정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중이다. 수녀님을 만난 그는 자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알리며 자신의 병명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다. 갑자기 노트를 꺼내며 앞으로 병이 나으면 집을 지을 계획인데, 아이들 방, 서재, 예수님방인 기도방을 마련할 것이라며 설계도를 보여준다. 그리고는 다시 수녀님에게 자기 병명을 꼭 알려달라고 재촉한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다 포기하고 한 달도 못사는 상황이라 불같은 남편 성격에 자신이 죽을병에 걸린 환자인 것을 알면 난리 칠 것이 두려워 아내는 도저히 병명을 이야기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며칠 지나 수녀님이 대신 토마스 형제에게 차분한 어조로 간암임을 알릴 때 그는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말을 잊지 못한다.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형제는 수녀님에게 자기보다 충격이 클 아내에게 당분간 비밀로 해주기를 청한다.

며칠 후 토마스 형제는 수녀님에게 자신이 곧 하느님 앞에 가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토로한다. “형제님, 사람은 살든 죽든, 후회 되는 일이 있거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52쪽) 그는 누구에게도 잘못된 일이 별로 없다고 대답했지만 밤새 생각한 후에 딱 세 명에게 잘못된 게 있다고 털어놓는다. 한 명은 아버지다. 일찍 어머니를 여윈 그는 어릴 때 학교에 손을 잡고 데려다 주신 인자한 아버지가 재혼 한 후 의붓동생과 갈등을 겪는 자신에게 회초리를 드신 잔인한 아버지로 각인되면서 아버지를 멀리했고, 결혼 후 찾아뵙는 횡수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16년 동안 아버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완전한 남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 명은 장애인학교 교사시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학생에게 아버지, 어머니 소리를 내라며 그 학생의 손바닥과 엉덩이를 때렸던 것이 늘 후회되었다고 한다. 수녀님은 즉시 그 학생을 병원에 데리고 와서 직접 만남을 주선했고, 토마스 형제는 그 아이에게 미안함을 눈물로 표현한다. 밤을 새워가며 용서와 그리움을 전하는 편지를 써서 아버지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자마자 아버지는 한걸음에 달려왔고, 16년 만에 만난 부자는 서로 부둥켜안고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 마지막 한 명이 누구냐고 묻는 수녀님에게 토마스 형제는 하느님이라고 답한다. 하느님께 잘못된 것이 많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마음으로 자기 시신을 기증하게 된다. 얼마 남지 않은 생명임을 아는 그는 하느님께 백묵 한 통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수녀님께 말한다. 23년 간 백묵은 자신의 삶의 도구이고, 백묵을 들었을 때는 죄를 안 지었다며 가진 것 중에 가장 깨끗한 것이니 하느님께 선물로 가져가겠다며 백묵 한 통을 들고 하느님께 평온하게 돌아가셨다.

2. 하느님께 가는 날 무엇을 준비할까?

저자 수녀님 역시 암으로 투병생활하던 때를 돌아본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암에 걸린 수녀님은 모든 소지품 정리를 하였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도자로서 살아온 삶을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충고해성사를 본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언하는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참 평화와 기쁨이 넘쳐흐르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하느님께 내놓을 부끄러움 없는 선물은 ‘분심없는 기도’라고 한다. 죄 없는 진실한 선물인 ‘백묵 한 통’처럼 우리는 어떤 선물을 하느님 앞에 선물로 가져갈 수 있을까?

2020. 11. 08 청담동 성당 주임신부 김민수 이나시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10월 28일 ~ 11월 03일)

동헌 예물		감사 헌금			
모든 성인 대축일	8,700,180원	윤 루시아	1,000,000원	헌화회	1,000,000원
교무금	31,815,000원	조 레지나	60,000원	민화동교회	100,000원
성소후원금 (6건)	100,000원	윤현성	50,000원	익명	200,000원
교무금 납부 현황		정재민	1,000,000원	익명	500,000원
총 세대수	2,546세대	김 그레고리오, 김 베레나			100,000원
총 납부세대	1,234세대				
지난 주 납부세대	9세대				
총 납부율 (%)	48.5%				합계:4,010,000원